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such as '2014 인천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KBS 뉴스', 'MBC 뉴스투데이', 'KBC 모닝와이드'.

“익숙하지만 신선한... 이 영화의 매력이죠”

박해일, '제보자'서 윤민철 PD역 완벽 소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신선함이 있다는 점이 '제보자' 매력이죠.”

오는 10월 2일 개봉하는 영화 '제보자'에 대한 주연 배우 박해일(37)의 평가다. 그 평가는 '제보자' 속 박해일 자신의 연기에도 충분히 발려 줄 수 있을 것 같다.

박해일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신선함'으로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외롭지만 용기를 내어 힘차게 싸우는 언론인의 모습을 훌륭히 소화했다.

박해일은 지난달 제작발표회에서 데뷔작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를 연출한 임순례 감독의 제안이만큼 덩석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사람이 아닌 시나리오를 믿어야 한다”는 애정 어린 꾸중을 들은 바 있다.

박해일은 23일 “나로서는 임순례 감독이 불러준 데 대한 반가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받아 보고서야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죠.”

'제보자'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05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황우석 당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절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성역이 된 황 교수의 의혹을 추적하면서 한때 전국민적인 비난에 시달린 한학수 당시 MBC 'PD수첩' PD가 박해일이 분한 윤민철 PD의 모델이다. 시나리오를 열어 본 박해일에게 부담과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제가 출연을 고민한 이유에는 그 사건을 다른 영화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접하지 않았던 성격의 작품이다 보니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서 영화에 잘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러나 박해일은 평소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언론인들을 보면서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했다.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아는 정도로 언론을 통해 접해본 기억이 전부”였다. 박해일은 다른 출연 배우, 스태프와 기본적인 생명공학 강의를 듣는 등 준비에 속도를 냈다.

박해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 모델인 한학수 PD와의 인연도 궁금해졌다.

“한 PD가 촬영 현장에 한 번 찾아왔기에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넓고 계속 촬영에 임했다”는 박해일은 “(조언을 듣고)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한 PD를 단순히 본뜨지 않고 고노력한 모습이었다.

“한학수 PD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윤민철이라는 인물을 만드는 데 한계가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실존한 인물만 따라가기보다는 진실을 더 능동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언론인 느낌들을 따라갔어요. 특정한

모델만 따라가면 좁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임 감독이 구상한 윤민철은 “근성도 있으면서 귀여운 구석도 있으며 어찌 보면 그렇게 상반된 속성을 가진 만큼 유연한 인물”이라는 게 박해일의 설명이다.

박해일은 별다른 변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 옷을 입은 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의 윤민철을 만들어 냈다. 관객들은 윤민철의 감정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영화에 몰입한다.

다만 영화 중반부 제보자(유연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윤민철이 “내 경력, 내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다”며 제보자에게 불합의 화를 내는 모습은 뛰어난 연기이다.

박해일은 이러한 지적에 “그 부분은 윤민철에게 직업적으로 어울리면서도 매력 있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부분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낸 다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윤민철의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윤민철이 ‘나한테 지금 감추는 게 있죠?’라고 제보자에게 예의 있게 말했다면 제보자가 더 큰 진실을 털어놓았을까요? 그만큼 윤민철은 ‘조짜’가 아니고 매사슬과 관록이 있다고 봐요.”

'제보자'는 '추적자'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만큼 도입부부터 국민적 영웅인 이장환 박사(이경영)에 대한 윤민철의 진실 쫓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해일이라는 배우의 힘도 있었지만 윤민철이란 캐릭터에 훨씬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도 제보자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맨 처음 제보에 의해 윤민철이 움직였고 결국 제보자가 없었다면 윤민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했겠죠.”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배우들이 주고받는 호흡이다.

박해일은 지난 겨울 3개월간의 촬영 현장을 복기하면서 “모두 자기 색깔이 분명한 배우들이지만 서로 튀려고 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다 보니 굉장히 기본 좋게 균형이 맞춰진 체 흘러간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극중 맞수인 이경영에 대해서는 “촬영할 때는 본인 역할에 집중하려고 할 때는 정말 유연하고 상대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나하나 공을 들이지 않은 장면이 없겠지만 그는 윤민철이 지난날 고통을 거쳐 결국 이장환 박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또 윤민철이 ‘PD수첩’이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사 사장 앞에서 온몸을 던지는 장면도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꼽았다.

“어떤 톤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장면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러다 상황에 맞긴 채 찍었는데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누가 회사 윤리강령을 위우고 다니셨어요. 그러나 임 감독은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봐요.”

'제보자'로 그의 알찬 필모그래피에 의미 있는 작품 하나를 추가한 박해일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time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부모 (육아를 부탁해)', '미술탐험대',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times, including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수능특강 light',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times, including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4일 (음 9월 1일 戊戌). 운세 정보 including 子, 午, 未, 申, 酉, 戌, 辰, 巳. Each section contains a zodiac sign icon and a paragraph of fortune-telling text.

“세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죠”. ‘엽기적인 그녀’2 촬영 앞둔 차태현. Photo of actor Cha Tae-hyun. Text discussing his role in 'The Lady in the Daisies 2' and his views on acting and life.